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0년 11월호

Contents

I. 한일경제 동향	2
1. 한일 무역 동향	2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5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6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9
1. 일본 무역 동향	9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12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4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19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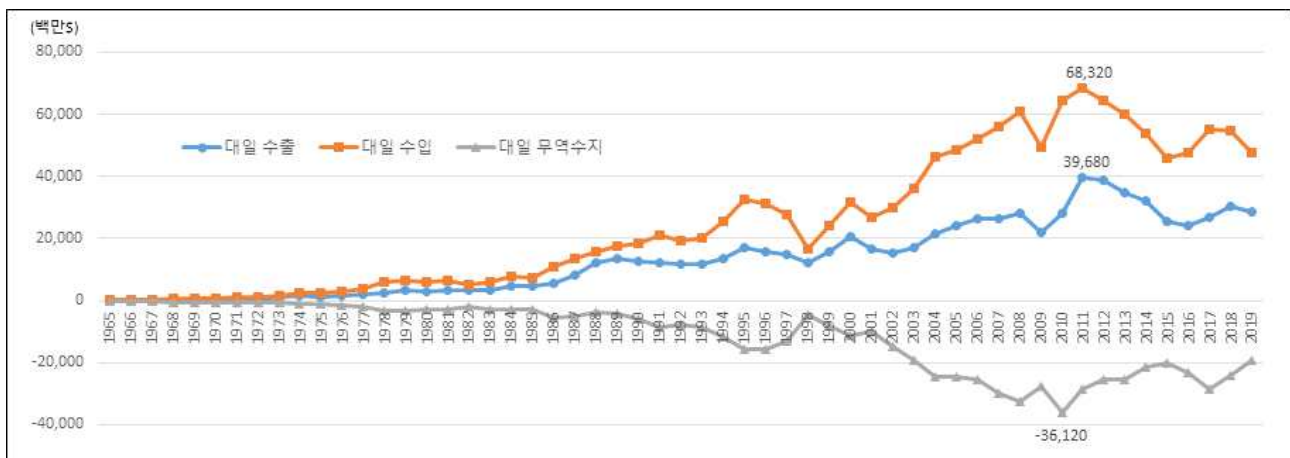
I. 한일경제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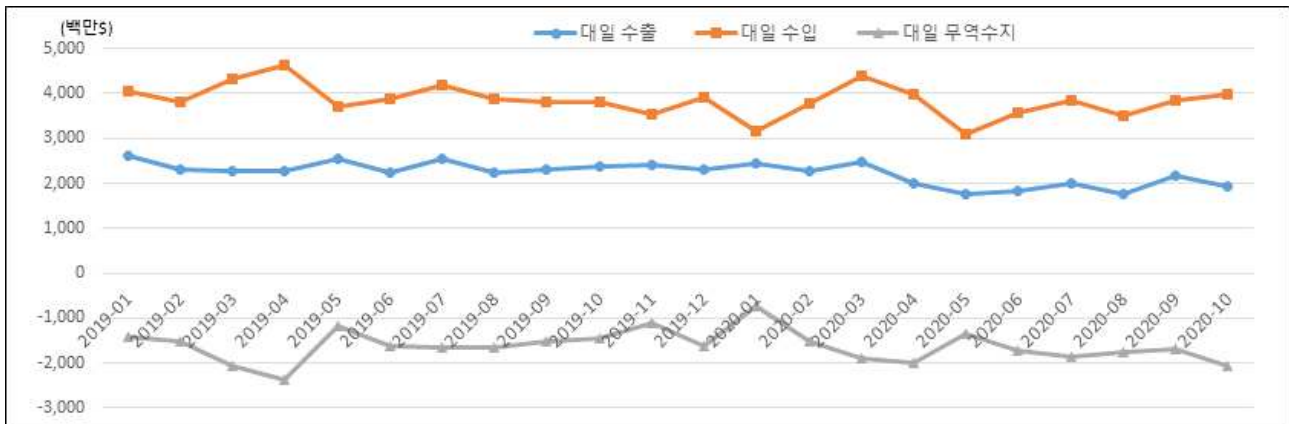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부터의 통계에서 한 해의 예외도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10월에는 전월 대비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출은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정도였는데, 최근 9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다가 10월에는 감소함
-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입은 전월대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는데, 최근 9월과 10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함
- 무역적자는 2020년 2월 이후 계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5월에는 감소, 6월과 7월에는 증가, 8월과 9월에는 감소, 10월에는 증가 추세를 보임

□ 한일 무역의 2020년 10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0년 10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지만, 대일 수입은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0년 10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44,899	-3.8	39,074	-5.6	5,825
일본 부분	1,928	-18.7	3,991	4.6	-2,063
일본 비중	4.3		10.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0년 10월에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3.8%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출은 18.7% 감소하여 19.3억 달러가 됨

- 2020년 10월에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5.6%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입은 4.6% 증가하여 39.9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58.3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20.6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3%였고, 수입 경우는 10.2%였음

○ <표2> 및 <표3>은 2020년 10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감소 품목이 증가 품목보다 더 많은 반면, 수입은 증가 품목이 감소 품목보다 더 많음

<표2> 한국의 2020년 10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10월(백만\$, %)			2020년 10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373	-14.2	-1,444	1,928	-18.7	-2,063
1	철강제품	349	-1.3	-185	274	-21.6	-83
2	정밀화학제품	157	-15.7	-218	167	6.4	-203
3	광물성연료	336	-45.4	295	148	-55.8	106
4	전자부품	143	-14.2	-447	126	-11.6	-559
5	산업용전자제품	127	0.7	-114	118	-7.7	-104
6	금속광물	74	7.9	17	106	43.5	15
7	농산물	107	21.1	94	95	-11.7	77
8	석유화학제품	114	-27.9	-123	84	-26.1	-166
9	수송기계	107	-4.5	-71	75	-30.1	-175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104	12.6	-7	66	-36.1	-40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0년 10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10월(백만\$, %)			2020년 10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816	-23.3	-1,444	3,991	4.6	-2,063
1	전자부품	590	-3.2	-447	685	16.0	-559
2	정밀화학제품	374	-20.0	-218	370	-1.1	-203
3	정밀기계	242	-56.2	-195	365	50.8	-322
4	철강제품	533	-10.4	-185	357	-33.0	-83
5	석유화학제품	236	-37.0	-123	250	5.9	-166
6	수송기계	178	-46.9	-71	250	40.7	-175
7	플라스틱제품	181	-11.8	-106	230	26.9	-168
8	산업용전자제품	241	-10.2	-114	222	-8.0	-104
9	기초산업기계	177	-23.2	-108	190	7.4	-131
10	비철금속제품	104	-6.7	-56	120	16.1	-73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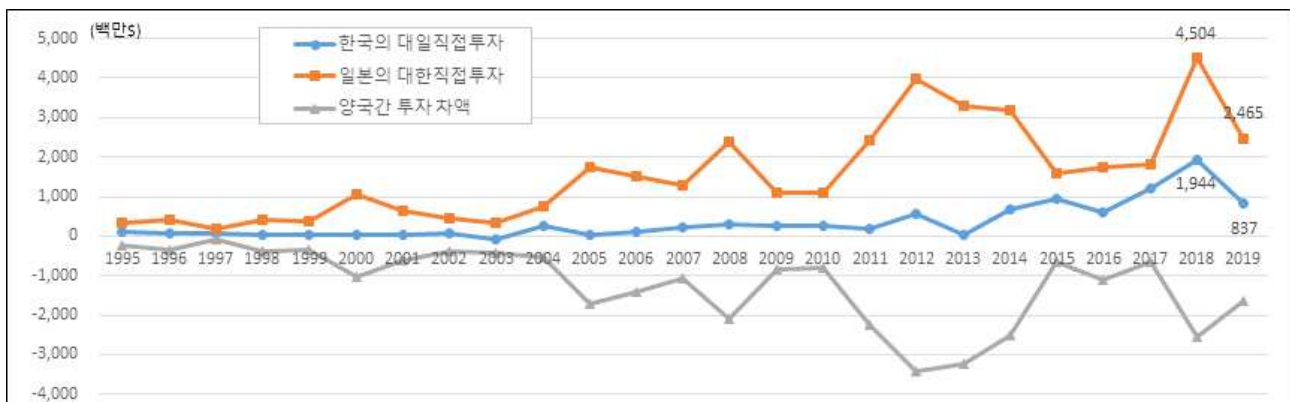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 대비 금속광물이 43.5%, 정밀화학제품이 6.4% 증가한 반면, 나머지 항목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광물성연료가 55.8%, 기계요소공구및금형이 36.1%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 대비 철강제품이 33.0%, 산업용전자제품이 8.0%, 정밀화학제품이 1.1% 감소한 반면, 나머지 항목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정밀기계가 50.8%, 수송기계가 40.7% 증가하였음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3>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한일간 갈등이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8.37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57.0%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371.75억 달러의 2.25%를 차지하였음
-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4.65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3%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2,486.75억 달러의 0.99%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4>는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4>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7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20,771	963	9,760	4,213	7,678	6,691
한국 부분(억¥)	73	52	81	26	179	59
한국 비중(%)	0.4	5.4	0.8	0.6	2.3	0.9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9월 8일, 10월 8일, 11월 10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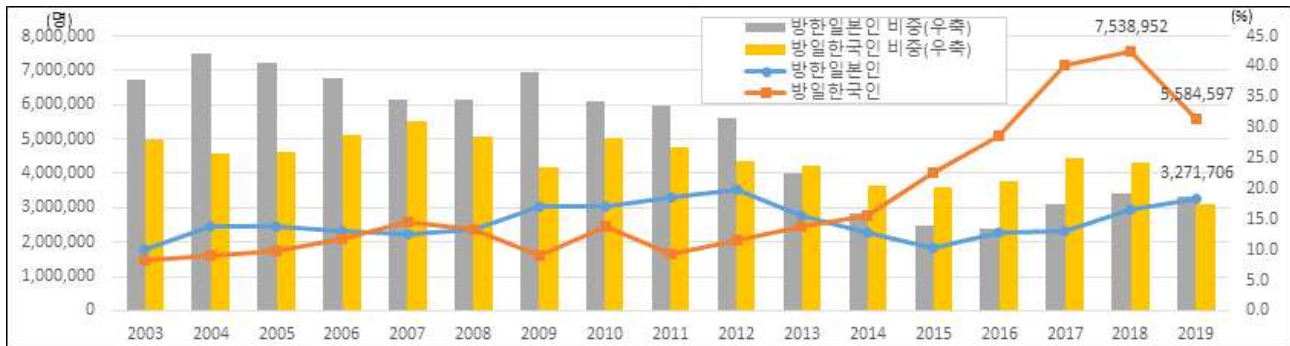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8월에는 9,760억 엔(실행 31,881; 회수 22,121)이었으나, 9월에는 7,678억 엔(실행 39,854; 회수 32,176)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8월 81억 엔(실행 223; 회수 142)에서 9월 179억 엔(실행 315; 회수 136)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8%에서 2.3%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8월에는 4,213억 엔(실행 25,102; 회수 20,889)이었으나, 9월에는 6,691억 엔(실행 30,358; 회수 23,666)으로 전월 대비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8월 26억 엔(실행 56; 회수 30)에서 9월 59억 엔(실행 65; 회수 7)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에서 0.9%로 증가하였음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함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558만 명이 됨

〈그림4〉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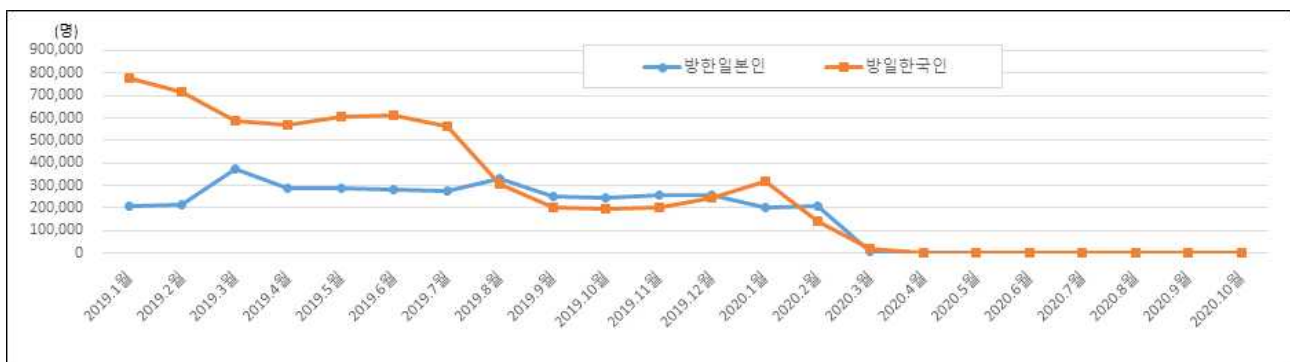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하여 327만 명에 달함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일외국인 총수는 3,188만 명이었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1,750만 명이었음)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5〉는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가 나타남

〈그림5〉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등으로 5월부터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를 보임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다시 감소 추세로 바뀜
- 방일한국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00명, 10월 2,000명 등으로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6월부터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10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10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전년동월 대비 크게 줄어든 점이 잘 나타나 있음

<표5>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10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19년10월	2020년10월	증감률		2019년10월	2020년10월	증감률
전체 (재외한국인포함)	1,656,195	61,585	-96.3	전체	2,496,568	27,400	-98.9
방한 일본인	248,541	927	-99.6	방일 한국인	197,281	2,000	-99.0
일본인 비중	15.0	1.5		한국인 비중	7.9	7.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10월 방한외국인(재외한국인 포함) 전체 수는 61,585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6.3%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927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6%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19년 10월 15.0%에서 2020년 10월 1.5%로 감소하였음
- 10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27,4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8.9%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0%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9년 10월 7.9%에서 2020년 10월 7.3%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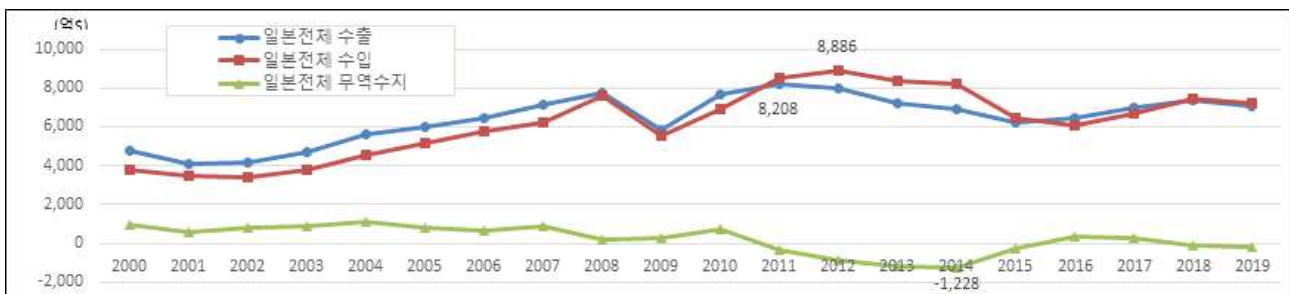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1. 일본 무역 동향

□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6>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보인 후 2016년과 2017년에 흑자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였음

□ 일본 무역의 2020년 10월 상황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10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6> 일본무역의 2020년 10월 상황

	2019년 10월	2020년 10월	증감률
수출(백만¥, %)	6,576,172	6,565,808	-0.2
수입(백만¥, %)	6,565,009	5,694,117	-13.3
수지(백만¥, %)	11,163	871,691	7709.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11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광물성연료, 선박, 철강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0.2% 감소하여 6조 5,658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액화천연가스, 항공기류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13.3% 감소하여 5조 6,941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대비 흑자가 7709.0% 증가하여 8,717억 엔이 되었음
- <표7>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10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은 증가 또는 감소한 국가도 있지만, 수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7> 일본 무역의 2020년 10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6,565,808	100.0	-0.2	5,694,117	100.0	-13.3	871,691	7709
아시아	3,691,619	56.2	4.4	3,015,291	53.0	-6.9	676,328	127.8
중국	1,457,738	22.2	10.2	1,535,729	27.0	-3.6	-77,991	-71.3
홍콩	303,758	4.6	1.1	5,997	0.1	-16.0	297,761	1.5
대만	422,723	6.4	1.9	250,727	4.4	-8.8	171,996	23.1
대한민국	416,141	6.3	9.0	219,818	3.9	-19.5	196,323	80.6
싱가포르	179,339	2.7	-4.0	79,854	1.4	13.0	99,485	-14.3
태국	287,345	4.4	6.7	234,566	4.1	-2.9	52,779	90
말레이시아	123,841	1.9	5.4	143,118	2.5	-9.5	-19,277	-52.5
인도네시아	77,408	1.2	-41.9	130,588	2.3	-20.4	-53,180	72.5
필리핀	91,080	1.4	-10.8	96,616	1.7	-6.5	-5,536	370.6
베트남	183,551	2.8	10.6	212,642	3.7	-4.4	-29,091	-48.4
인도	98,672	1.5	11.4	45,955	0.8	-3.0	52,717	28.0
대양주	187,909	2.9	11.5	328,922	5.8	-26.0	-141,013	-48.9
호주	143,953	2.2	20.9	292,681	5.1	-26.3	-148,728	-46.5
뉴질랜드	21,805	0.3	-1.4	19,317	0.3	-17.2	2,488	-
북미	1,375,516	20.9	2.0	690,301	12.1	-16.1	685,215	30.5
미국	1,299,390	19.8	2.5	600,898	10.6	-15.6	698,492	25.7
캐나다	76,126	1.2	-5.3	88,666	1.6	-19.5	-12,540	-57.9
중남미	221,554	3.4	-26.2	256,513	4.5	-6.0	-34,959	-
서유럽	705,271	10.7	-7.9	753,759	13.2	-10.8	-48,488	-38.6
독일	185,619	2.8	7.4	188,733	3.3	-13.5	-3,114	-93.1
영국	98,730	1.5	-22.8	54,049	0.9	-21.2	44,681	-24.8
프랑스	53,789	0.8	-20.2	86,473	1.5	-25.2	-32,684	-32.3
네덜란드	109,252	1.7	6.2	34,804	0.6	-13.7	74,448	19.1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48,429	2.3	1.6	146,159	2.6	-26.3	2,270	-
중동	158,434	2.4	-30.3	418,192	7.3	-36.8	-259,758	-40.2
아프리카	77,076	1.2	-9.0	84,979	1.5	5.2	-7,903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11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6.2%, 수입의 53.0%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고, 對아시아 무역흑자는 6,763억 엔으로 127.8% 증가하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2.2%, 수입의 27.0%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780억 엔으로 71.3% 감소하였음
 - 대만은 수출의 6.4%, 수입의 4.4%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720억 엔으로 23.1% 증가하였음
 - 한국은 수출의 6.3%, 수입의 3.9%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1,963억 엔으로 80.6% 증가하였음
 - 미국은 수출의 19.8%, 수입의 10.6%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6,985억 엔으로 25.7% 증가하였음
 -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경우도 감소한 경우도 있었지만,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 독일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7.4% 증가한 반면, 수입이 13.5% 감소하였음
 - 영국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22.8%, 수입이 21.2% 감소하였음
- <표8>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10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품목도 감소한 품목도 있지만, 수입은 모든 품목이 감소하였음

<표8> 일본 무역의 2020년 10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6,565,808	100.0	-0.2	-0.2	5,694,117	100.0	-13.3	-13.3
1 식료품	78,279	1.2	21.5	0.2	553,085	9.7	-9.3	-0.9
2 원료품	99,932	1.5	22.2	0.3	394,090	6.9	-6.4	-0.4
3 광물성연료	35,824	0.5	-68.6	-1.2	780,282	13.7	-38.5	-7.4
4 화학제품	801,931	12.2	8.2	0.9	642,078	11.3	-3.4	-0.3
5 원료별제품	669,019	10.2	-3.7	-0.4	539,148	9.5	-8.1	-0.7
6 일반기계	1,194,344	18.2	-2.8	-0.5	591,932	10.4	-3.9	-0.4
7 전기기기	1,239,244	18.9	4.6	0.8	1,062,100	18.7	-3.5	-0.6
8 수송용기기	1,546,529	23.6	-1.9	-0.5	212,461	3.7	-31.8	-1.5
9 기타	900,706	13.7	1.3	0.2	918,941	16.1	-6.9	-1.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11월 27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 경우는 식료품이 21.5%, 원료품이 22.2%, 화학제품이 8.2%, 전기기가 4.6%, 기타가 1.3% 증가한 반면, 광물성연료가 68.6%, 원료별제품이 3.7%, 일반기계가 2.8%, 수송용기계가 1.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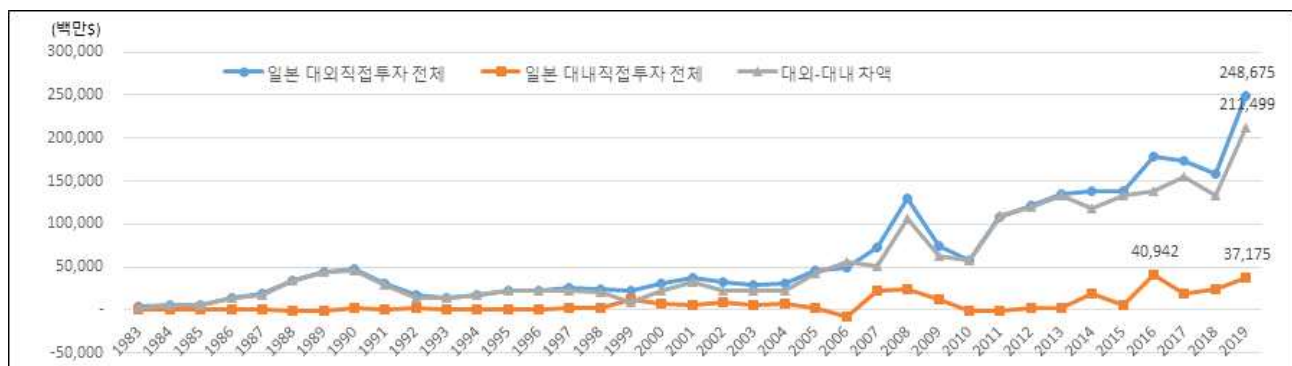
- 증가기여도가 가장 높은 화학제품의 경우 세부적으로 유기화합물이 14.7% 감소한 반면, 의약품과 플라스틱이 각각 16.3%, 14.5%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모든 항목이 감소하였는데, 감소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광물성 연료가 38.5%, 수송용기기가 31.8%, 기타가 6.9% 등으로 감소하였음
- 광물성원료에 속하는 원유및조유(粗油),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석탄의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42.6%, 18.7%, 42.7%, 7.0%, 35.4% 감소하였음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7>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487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72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15억 달러에 달했음
- 2019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15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9>는 2020년 9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외직접투자와 대내직접투자 모두 플러스였으며, 전자가 후자보다 약간 많았음

<표9> 일본 직접투자의 2020년 9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7,678	100.0	6,691	100.0
아시아	3,761	49.0	319	4.8
중국	842	11.0	-173	-2.6
홍콩	397	5.2	701	10.5
대만	128	1.7	474	7.1
한국	179	2.3	59	0.9
싱가포르	1,240	16.2	-1,278	-19.1
태국	244	3.2	517	7.7
인도네시아	315	4.1	9	0.1
말레이시아	132	1.7	3	0.0
필리핀	78	1.0	3	0.0
베트남	93	1.2	0	0.0
인도	187	2.4	4	0.1
북미	2,410	31.4	2,333	34.9
미국	2,236	29.1	2,313	34.6
캐나다	174	2.3	20	0.3
중남미	611	8.0	-223	-3.3
대양주	742	9.7	189	2.8
호주	279	3.6	193	2.9
뉴질랜드	453	5.9	1	0.0
유럽	5,243	68.3	4,074	60.9
독일	200	2.6	147	2.2
영국	635	8.3	1,751	26.2
프랑스	66	0.9	208	3.1
네덜란드	2,266	29.5	235	3.5
중동	11	0.1	-2	0.0
아프리카	-5,101	-66.4	0	0.0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 11월 10일)에 근거하여 작성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7,678억 엔(실행 39,854; 회수 32,176)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유럽(68.3%), 아시아(49.0%), 북미(31.4%)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아프리카 경우는 실행보다 회수가 더 많아 순투자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네덜란드(2,266억 엔, 29.5%), 미국(2,236억 엔, 29.1%), 스위스(1,715억 엔, 22.3%), 싱가포르(1,240억 엔, 16.2%)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우는 순투자가 마이너스(-5,268억 엔)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6,691억 엔(실행 30,358; 회수 23,666)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는 유럽(60.9%)과 북미(34.9%)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2,313억 엔, 34.6%), 영국(1,751억 엔, 26.2%), 스위스(1,446억 엔, 21.6%)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았음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0년 11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11월 25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0>과 같음

<표10>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1-3월	2020년 4-6월	2020년 7-9월	2020년 7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3	0.7	-1.8	-10.2	-5.8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2.3	0.9	0.6	-3.5	-3.3	-3.8	-3.4	-2.5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3.9	-5.8	-5.7	-12.7	-19.8	-14.4	-21.4	-22.8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4.2 -2.3	90.5 -4.0	86.3 -9.9	80.0 -12.4	82.1 -10.1	82.8 -11.3	81.9 -9.1	81.5 -9.9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8.4	10.1	2.5	4.2	7.0	12.7	-5.4	11.5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7 2.8	-4.3 -1.1	-5.5 -7.0	-25.1 -4.8	-14.9 P -11.4	-21.9 -14.0	-14.9 -11.6	-7.7 P -8.5	P -1.6 P -5.7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1	-3.0	-4.5	-19.8	-12.8	-15.5	-13.8	-9.0	
<법인경상이익-채무상> 전체규모-전체산업	3.7	-3.5	-28.4	-46.6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8,235 -2.0	8,383 1.7	2,164 12.9	1,837 -11.4	2,021 -7.3	789 -1.6	667 -1.6	565 -19.5	624 -20.0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4	2.4	2.8	3.0	2.9	3.0	3.0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2.6 1.0	0.2 0.5	0.5 0.5	-2.3 0.1	-0.8 0.2	-0.9 0.3	-0.6 0.2	-0.8 0.0	P -2.1 -0.4
<금융> 닛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22,310 110.40	21,697 108.99	21,808 108.79	20,784 107.61	22,906 106.20	22,529 106.78	22,901 106.04	23,306 105.74	23,451 105.24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0년 10월 및 11월)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9월에 전월 대비 1.6% 증가함
- 실질고용자소득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소비자 심리는 회복되고 있음
- 감염증과 그에 따른 자숙의 영향이 남아 있지만, 많은 재화 및 서비스에 있어서 전향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신차판매대수는 회복되고 있음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여행 경우에는 회복되고 있음
- 외식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가전판매는 증가해 왔으나 최근 쉬어가는 모습이 보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개인소비는 회복되고 있음
- 향후 방향에 관해서는 감염확대 방지책을 강구하면서 사회경제 활동 레벨을 상향시켜 가는 가운데 개인소비의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4-6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설비투자는 2020년 4-6월기에 전기 대비 6.3% 감소하였는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3% 감소, 비제조업이 6.8% 감소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최근 약세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9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제조업에서는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감소, 전체산업에서는 감소가 예상됨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과잉이라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감소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최근 약세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감소와 장래 불투명 인식의 증가로 당분간은 신중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건설은 약세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최근 보합 상태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9월에 전월 대비 0.5% 감소하여 연율 81.5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투자는 건실하게 추이하고 있음
 - 9월의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 대비 1.8% 증가, 10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 대비 5.9% 감소, 9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 대비 20.8% 증가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건실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회복되고 있으며, 수입은 최근 약세이며, 무역·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 상태임
 - 수출은 회복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아메리카 및 기타지역 쪽 수출은 회복되고 있고, EU 쪽 수출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을 살펴보면, 10월의 방일 외국인수는 전년동월 대비 98.9% 감소하였음
 - 수입은 최근 약세이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은 약세 상태임
 - 무역·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 상태임
 - 9월 무역수지는 수출금액의 증가로 흑자폭이 확대됨
 -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9월은 전월 대비 3.9%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9월에 전월 대비 0.5%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10월은 전월 대비 4.5% 증가, 11월은 전월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되고 있고, 생산용 기계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의 새로운 하향 변동 리스크 및 감염증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대기업에서는 일부 감소폭 축소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염증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지만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임
 - 상장기업 2020년 7-9월기 결산을 보면, 경상이익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함
 - 일본은행 短觀(9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10.0%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3.3%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경상이익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38.9%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15.7%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지만, 개선의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観(9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상승하였고, 12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대비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상태로 나타났는데, 9월 565건, 10월 624건으로 되었고, 부채총액은 9월 707억 엔, 10월 783억 엔으로 되었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고용자 수 등의 움직임에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9월에 전월과 같은 수준인 3.0%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고, 완전실업자 수는 증가하였음
 - 고용자 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신규 구인 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유효구인배율은 낮아지고 있고, 제조업의 잔업시간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 총액은 최근 보합권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합권대로 움직이고 있음
 - 일본은행 短観(9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은 계속적으로 전체 산업에서는 부족초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에서는 과잉초과로 나타났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사회경제활동 레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가는 가운데 하방이 견고한 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최근 보합 상태이며, 소비자물가도 보합상태임
 - 10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 대비 0.2% 하락하였고, 하계전력요금 조정 후에는 전월 대비 0.0%가 되었음
 - 수입물가(엔 기준)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상태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보면, 10월에는 전월 대비 0.4% 포인트 하락하여 72.4%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권대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상승-하락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고-엔저-엔고 추세를 보였음

- 주가는 23,400엔대에서 22,900엔대까지 하락, 이후 26,000엔대까지 상승, 이후 25,500엔대까지 하락함
-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은 104엔 대, 103엔 대, 105엔 대, 103엔 대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3%대에서 -0.01%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보이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 대비 5.9%(10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 대비 16.3%(10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 대비 9.0%(10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0년 10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11월 25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과 경제활동을 양립시키면서 고용의 확보, 사업의 계속 등을 통해 국민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이에 더해 COVID-19로 인해 명확해진 디지털화 등의 새로운 목표에 관해서 규제개혁 등 집중적인 개혁과 필요한 투자를 함으로써 새롭게 강인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등에 기반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논의된 큰 방향성과 중점과제를 따르면서, 새롭게 설치된 성장전략회의에서 개혁을 구체화함
- 2020년도 제1차 보정예산을 포함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 및 제2차 보정예산을 신속히 실행함
 - 이와 더불어 감염확대를 억제하면서 고용과 사업을 지탱해 가고,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경제의 회복 움직임을 확실한 것으로 하고, 민간투자를 촉구하는 등 민간수요 주도의 성장궤도로 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을 신속히 책정함
- 일본은행은 기업 등의 자금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 유지의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정부의 경제 관련 동향

- COVID-19의 유입방지대책이 11월 1일 완화되어 중국, 한국, 대만 등 11개국·지역으로 부터의 입국자의 공항에서의 바이러스 검사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아사히신문, 20.11.1.)
 - 검사 대상 완화는 감염 확대 이후 처음이며, 검사가 불필요해진 곳은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임
 - 일본 체류 장소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질문표 제출이나 입국 다음 날부터 14일간 대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동 요청은 종전과 동일함
 - 나리타공항에서는 1일 오전, 서울에서 항공편이 도착하자 검역관이 과거 2주간 체류지를 확인하고 한국만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검사가 필요 없는 대기줄로 유도했으며, 이들은 질문표를 제출하자마자 곧바로 입국심사에 들어갔음
- 일본,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정상회의가 1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15개국이 협정에 서명(마이니치신문, 20.11.16.)
 - 협상에서 이탈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참가국 전체의 관세 철폐율은 품목 기준 91%이고 각국 내 절차를 거쳐 조기 발효를 목표로 함
 - 일본으로서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3번째인 한국이 포함되는 첫 경제연대협정(EPA)임
 - 협정에 의해 일본산 공산품 전체의 관세 철폐율은 전품목 기준으로 약 92%, 중국은 약 8~86%, 한국이 약 19~92%로 큰 폭으로 상승함
 - 중국 수출용 엔진 관련 부품이나 전기 자동차(EV) 전용 모터, 축전지 부품의 관세가 폭넓게 철폐되어 자동차 수출에 순풍이 될 것 같음
 - 일본이 수입하는 농림 수산품의 관세 철폐율은 49~61%로 국내 생산자를 배려했음
 - 쌀, 보리 등 주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삭감 및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음
 - 일본 술은 중국이 40%, 한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철폐함
 - 관세 분야 외에도 전자 상거래, 투자, 지적 재산 등 합계 19 분야에서 공통 규칙을 책정했으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호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았음
 - 2013년에 시작된 교섭에서 일본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의 참가를 중시해 왔으나, 염가의 중국 제품 유입에 의한 대 중국 무역적자의 확대를 염려하는 인도는 작년에 교섭에서 이탈했음

- 사카모토 테츠시 지방창생담당상은 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아키오 회장에 지방 텔레워크 협력 요청(산케이신문, 20.11.19.)
 - 사카모토 담당상은 일본상의 미무라 회장과 11월 19일 도쿄도 내에서 의견교환을 하고,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텔레워크로 도쿄 기업에 근무하는 방법 추진에 협력을 요청했음
 - 도쿄 일극 중심의 시정이 목적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텔레워크가 가능성이 실증되었다. 도쿄권에서 지방에의 이주도 추진하고 있다” 고 사카모토 담당상은 설명했다
 - 미무라 회장은 지방에서의 생활 및 지방에서 부업을 가지는 것에 대한 도쿄 내 사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에서 리모트워크가 가능하도록 환경정비 정책이 강하게 요구된다” 라고 답했음
 - 일본 정부는 올해의 지방창생 기본방침으로 도쿄기업에 근무하는 사원에 의한 지방에서의 텔레워크 추진을 진행 중임
- 외국인 유학생 창업지원으로 최장 2년 체류자격 인정하는 제도 마련(NHK, 20.11.23.)
 - 기존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국내에서 창업하려면, 새로운 재류 자격의 취득이 필요하고 사업소의 개설이나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등이 요건으로 되어 있었음
 - 일본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을 늘려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고자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 대학 등을 졸업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최장 2년간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
- 중일외상회담에서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왕래를 11월 중에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음(요미우리신문, 20.11.24.)
 - 모테기 외상은 11월 24일 도쿄 도내에서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 COVID-19의 감염 확대로 중지되고 있는 단기 출장과 중장기 체류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왕래를 11월 중에 재개하는 것에 합의
 - 왕래 재개는 중장기체류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의 대기를 해야 하지만, 단기 체류자는 대기를 면제함
- 일본 정부가 2030년경 제공되는 차세대 고속통신규격 6G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이 표준화되도록 지원하는 활동에 본격 돌입(닛케이신문, 20.11.30.)
 - 고속 통신 기술을 글로벌하게 보급시키기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규격의 표준화인데, 각사 기지국이나 단말 등이 서로 접속할 수 있도록 기술 사양을 공통화함
 - 표준규격을 책정하는 논의는 각국 기업의 지적재산 담당자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뒤처짐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목표를 정한 것이 30년도 경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6G인데, 사이버 공간과 실시간 데이터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원격지에서의 로봇 조작과 웨어러블 단말을 통한 실시간 체험이 쉬워짐
- 일본 총무성은 6월에 ‘Beyond 5G 추진 전략’을 세워 기업 지원에 나섰음
- 표준화 활동은 연간 단위의 꾸준한 작업으로 인재전략에서 중국 기업은 적극적으로 구미의 전문가를 스카우트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내부 인재에 의지하는 것이 아직 주류임
- 표준화 활동 전반에의 참가자가 고령화하고 있는 것도 염려되는 점인데, 경제산업성과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40대 이하 참가자는 중국과 한국이 각각 60%, 45%인데 비해 일본은 5%임
- 코스트를 들여 표준화를 이끌지 않더라도 제품의 판매는 가능하지만, “따라잡기 전략이라면 시장에서의 제품 투입이 1~2년이 늦어진다. 코스트로 싸우는 전략이 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승부할 수 없게 된다”고 NEC 가와구치 매니저는 말함

□ 한일 협력 관련 동향

- 일한의원연맹은 11월 12일 국회 내에서 한국 측 한일의원연맹과 합동 간사회를 열었음(닛케이신문, 20.11.12.)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 관한 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전 징용공 문제 등으로 악화되는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양국 정부 간 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해 의원 외교를 계속할 방침을 확인했음
 -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은 “대국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싶다”라고 말했음
 - 한국 측 김진표 회장은 “현안을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양국 정상에 정치적 결단을 내릴 여건이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음
 - 김진표 회장 등은 이날 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와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각각 회담했음
 - 아키바 다케오 외무차관은 12일 최종건 한국 외무부 제1차관과 전화 협의를 가졌으며, 전 징용공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음
- 국제수로기구(IHO)는 11월 17일 새벽 총회에서 공식 지도에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지침의 유지와 해역을 숫자로 표기하는 디지털판 해도를 새로 만드는 방침을 잠정 승인(요미우리신문, 20.11.17.)
 - 총회에서는 IHO 사무국장이 일본해 단독 표기와 디지털판 해도 건을 제안하였고, 참가국에서 이견이 나오지 않았음

- IHO는 각국이 공식 해도를 만들 때 참고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지침에서는 1928년 초판부터 줄곧 일본해 해역을 ‘Japan Sea’ 라고 적고 있음
 - 이에 대해 한국은 1990년대 들어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를 대외적으로 주장하게 되었음
 - IHO가 새롭게 만드는 디지털판 해도는 세계 각 해역에 호칭 대신에 숫자를 할당하는 것으로 PC 등에 도입해 각국의 공선이나 민간 선박이 항해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 한일 대화의 움직임, 정세변화를 타개의 계기로(마이니치신문, 20.11.18)
- 한일의원연맹의 김진표 회장과 한국 정보기관의 수장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잇따라 일본을 방문하여 스가 요시히데 총리 등과 회담했음
 - 일본에서도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 등이 지난달 방한한 적이 있음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당선을 확실히 함으로써,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큰 변화에 직면하려 하고 있음
 -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하고 있어, 대북 정책은 한미일의 연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
 - 미중 대립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계속 될 것 같으며, 갈등의 틈새에서 어려운 대응을 강요당하는 한일의 입장은 공통점이 있음
 - 최대의 현안인 징용공 문제에서는 한국 측이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실행되어 버리면, 새로운 대립 격화는 불가피함
 - 다만, 한국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해결될 일도 없을 것임
 - 힘 관계의 급속한 변화가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상대 체면을 유지하면서 사태 타개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하루아침에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양국 관계의 안정은 서로의 국익에 이바지하므로 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한일경제인회의가 11월 27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음(산케이신문, 20.11.27.)
- 한일경제인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양국 정부에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민간 교류 지원’ 과 COVID-19 감염 확산으로 정체된 ‘비즈니스 왕래 재개’ 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음
 -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은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인재, 문화 교류가 더욱 중요하다” 며 주최자를 대표해 정리하고 회의 성과를 강조했다
 - 1969년부터 매년 한일 간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는 한일경제인회의는 이번이 52번째로, 당초는 금년 5월에 도쿄도 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COVID-19 감염 확대로 연기되어 동경 내의 호텔과 서울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함

- 징용공 확정판정이 11월 29일 2년이 됨(요미우리신문, 20.11.27.)

〈현금화까지의 주요 흐름〉



- 징용공 소송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확정된 후 11월 29일이면 2년이 되는데, 현금화가 실현되기까지 절차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한국대법원의 배상 명령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는 1654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반발,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것을 표명했음
- 사망한 1인을 제외한 원고 4명은 2019년 3월 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모두 약 8억 400만 원(약7580만 엔) 상당을 압류
- 일본정부는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고 있고, 서류의 송달거부로 소송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는 금년 9월에서 10월에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의 절차를 취했음
- 이로 인해서 자산매각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의견을 듣는 심문이 11월에 열린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12월 30일에는 압류 명령의 결정도 통지된 것으로 됨
- 다음의 논점은 압류된 자산의 매각명령으로 이행이며, 원고 4명은 2019년 7월에 자산 매각명령을 신청했음

-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현금화까지는 절차가 있음
-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해서 즉시항고를 하면 항고심 절차의 적정성을 심리하게 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서 자산이 경매로 나오고 매수자가 나오면 현금화가 실현되는 것임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 국내 기업 동향

- 도시바는 에너지 사업을 재검토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수주를 중단할 방침을 결정했음(NHK, 20.11.11.)
 - 도시바는 11월 11일 중간결산 발표에 맞춰 경영계획 진척상황을 설명할 예정으로 관계자에 따르면 에너지 사업을 재검토해서, 향후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수주를 중단할 방침을 밝힐 전망
 -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은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지고 비용도 비싸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임
 - 다만 이미 수주한 약 10건의 건설공사 외에 발전소의 보수 및 터빈 제조 등을 계속하기로 했음
 - 태양광이나 수력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에의 투자는 강화해, 2030년도에는 매출 규모를 작년도의 3배가 넘는 6,500억 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을 전체적으로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항체의약품 등 고도 약 제조에 특화된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음(아사히신문, 20.11.18.)
 - 제약회사가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화학업체가 제조를 맡는 사례가 늘었음
 - 항체의약품과 유전자 치료약 등은 ‘바이오 의약품’으로 불리며 대부분은 탱크에서 사람이나 동물에서 온 세포를 배양해 제조함
 - 후지필름은 금년 들어 복수의 미국 제약회사로부터 신형 코로나 대상 백신과 치료제의 제조를 수탁, 그 이외의 수주도 증가해 6월에는 덴마크의 공장에 1천억 엔을 투자해 탱크를 증설할 것을 결정했음
 - 이러한 비즈니스는 CDMO사업(의약품의 개발·제조 수탁)이라 불리는데, 일본 국내에서는 유리 산업 최대기업 AGC와 화학 중견의 JSR과 같은 화학 업체 등이 다름
 - AGC는 11월 17일 새롭게 덴마크의 거점에 200억엔을 투자해 설비를 증강한다고 발표했다, JSR도 CDMO를 포함한 관련 사업으로 작년도는 505억엔 매출을 달성해, 성장 사업으로 설정함

- 화학 업체가 이러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하나의 약을 만드는 노력이나 코스트가 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임
 - 바이오 의약품 제조를 위한 배양탱크를 신설하면 최소 수백억 엔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후지필름의 가세 아키라 바이오 CDMO 사업부 차장은 “중소기업과 바이오벤처에게는 어렵다. 제약 대기업도 설비 투자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제조를 외부 위탁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라고 함
 - 화학업체로서는 신약 개발까지 다루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제조에 특화하면 배양과 품질관리 등 지금까지 구축한 기술을 응용할 수 있음
 - 후지필름에 의하면 세계의 시장규모는 2015년 약 5천억 엔에서 10년 후에는 2배인 1조 엔에 이를 전망이다
- 이화학연구소와 후지쓰가 개발한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 관련 산업 저변 확대 (닛케이신문, 20.11.18.)
- 후가쿠는 일본국산 슈퍼컴퓨터로 11월 17일 공표된 계산 속도를 겨루는 세계랭킹에서 1위를 유지했음
 - 1초당 계산 능력을 겨루는 콘테스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전용의 계산 등에서도 연속해 1위를 획득했음
 - 후지쓰는 후가쿠를 베이스로 한 염가판 슈퍼컴퓨터의 판매를 가속시키고 있음
 -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상디아국립연구소와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등에서 수주받았음
 - 미국 휴렛 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와도 협업하여 후가쿠와 같은 CPU(중앙연산처리장치)를 탑재하는 슈퍼컴퓨터의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 캐논은 후가쿠의 기술을 사용한 신형 기계를 구입하여 21년부터 운용을 시작하는데, 높은 계산 능력을 사용해 수천에 이르는 제품의 부품 전부를 해석할 수 있어 설계자가 예기치 않았던 결함도 검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함
 - 후지쓰는 편리한 사용을 중시해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는 미국 등의 슈퍼컴퓨터 경우는 AI 계산에 화상처리반도체(CPU)를 사용하는 등 복잡한 시스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 7월 후쿠오카-부산 취항할 예정이었던 JR큐슈고속선(후쿠오카 시)의 신형 고속여객선이 우선 일본 운항(닛케이신문, 20.11.24.)
- JR큐슈 고속선의 신형 고속여객선 ‘퀵비틀’의 완성 기념식이 24일 후쿠오카 시의 하카타 항에서 열렸음
 - 7월 부산과 취항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한일 항로는 3월부터 운항이 중단되고 있음

- 세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선적(퀵비틀은 파나마 선적)을 취득한 이 새로운 선박은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 영업이 불가능함
- JR큐슈고속선은 특례 조치를 큐슈 운수국에 신청하는데, 운수국도 긍정적이라고 함
- 퀵 비틀은 약 57억엔을 들여 건조했으며, 이오야기 도시히코 사장은 “한일 항로의 재개 조건이 갖추어지면, 즉시 운항을 개시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음

□ 한일 기업 협력 관련 동향

- 후쿠오카-한국 왕복편이 8개월 반 만에 운항을 재개(NHK, 20.11.23.)
 - COVID-19 영향으로 운항이 계속 중단되었던 후쿠오카와 한국을 잇는 왕복 항공편이 11월 23일 8개월 반 만에 재개
 - 후쿠오카공항에서는 COVID-19 영향으로 올해 3월 이후 한국에서 여객편의 운항이 중지되었으나, 검역 등의 태세를 갖추어 이번 달 17일부터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 받았고, 아시아나항공이 후쿠오카공항과 인천공항을 잇는 왕복편 운항을 재개했음
 - 입국한 승객의 대부분은 유학이나 취직, 비즈니스 출장이 목적이라 한국과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LINE은 인간 수준의 일본어 표현이 가능한 인공지능(AI)을 모회사인 한국 네이버와 공동 개발(닛케이신문, 20.11.25.)
 - 모회사인 한국 네이버와 공동 개발하며, 이 회사는 대규모 슈퍼컴퓨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양 회사에서 수백억 엔 규모인 것으로 보임
 - 범용적인 AI는 인간이 표현하는 문장 및 회화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여, 부정 및 긍정, 관련 정보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문맥에 맞는 대화가 가능함
 - 언어 AI의 실용화는 영어판이 선행하는데, 일본어는 국제적으로 데이터가 적고, 활용범위도 좁은 점 등 때문에 개발이 뒤쳐져 있었음
 - LINE는 웹상의 문장과 서적, 기사 등 다양한 패턴의 일본어 데이터를 100억 페이지 이상 수집하며, 새로운 AI에 의한 응답 능력 향상을 살려 폭넓은 분야에의 응용을 전망하고 있음